

##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평가

조피터계춘\*

### 논문초록

본고는 이슬람 선교에 평생을 바친 즈웨머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목회상담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즈웨머는 후원금을 모아 아라비아로 갈만큼 초기부터 이슬람 선교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가진 선교사였다. 그의 무슬림 선교는 열병과 재정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등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슬람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26년의 전반기 선교사역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열매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이슬람 선교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초기 대결적이고 대립적인 선교방식에서 보다 인류학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접근법을 취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우정과 우애의 선교방식으로 드러났다. 그의 변화된 선교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날 보기에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을 가진 선교방식 혹은 전략으로 보인다. 목회상담학적 선교방식이란 복음의 일방적이고 선포적인 방법이 아닌, 상호 관계성 가운데 호혜적이고 양방향성의 소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그것은 목회상담학에서 중요시되는 공감과 경청, 이야기 해석학, 치료적 동맹관계 등과 같은 방식들과 유사한 것이다. 이는 무슬림을 비롯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교류에 필요한 건설적인 접근방식과 이해를 제공해 준다. 즈웨머의 변화된 무슬림 선교방식은 오늘날 목회상담적 요소를 가진 선교였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받아야 하고, 종교적 혹은 정치적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동반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대안으로서 목회상담적 선교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이슬람선교, 무슬림, 공감과 경청, 이야기 해석학, 치료적 동맹관계, 목회상담적 선교 방법

---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실천신학부 목회상담학 박사과정  
2016년 10월 6일 접수, 11월 7일 최종수정, 11월 20일 게재확정

## 1. 서론

젊은 학생 선교사 지원자들은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열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은 당시 서구 기독교에 격렬히 저항하던 이슬람 선교에 박차를 가했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의미 있는 기독교 선교는 13세기 레이먼드 롤(Raymond Roll)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당시 무슬림과 싸우기보다 기독교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슬람 복음화에 관심을 쏟았던 사람이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서구 기독교는 무슬림을 이교도로 규정하고 그들을 복음의 대상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롤은 그러한 관점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널(Stephen Neill)에 의하면, 롤의 무슬림 선교의 두드림이 있는 이후 몇 세기 동안 여전히 무슬림 국가는 기독교 선교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Neill, 1964: 366).

그러나 19세기 말, 무슬림에 대한 기독교 선교의 인식과 상황이 바뀌었다. 1860년에 영국 국교도들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갔으며, 다른 교단들도 머뭇거리며 뒤를 따랐다. 하지만 무슬림 선교 활동을 조정하고, 무슬림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성에 세계의 주의를 집중시킨 인물은 ‘사무엘 마리누스 즈웨머’였다. 학생자원자로서 이슬람 선교에 뛰어든 그의 노력으로, 기독교의 본격적인 이슬람 선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그를 ‘이슬람의 사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정승현, 2016: 124; Woodbridge, 1995: 236). 그러나 즈웨머 이후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이슬람 선교는 다른 지역의 선교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이슬람 선교를 방해해 왔는데, 마치 과거 시대 대립적이며 정복적이었던 선교 패러다임의 시대로 회귀한 것처럼 최근의 IS의 군사적 활동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 등에 맞물려 이슬람 선교는 위기 아닌 위기 가운데 있는 듯하다(Bosch, 2000: 27). 이런 상황에서 즈웨머의 이슬람 선교 사역의 철학과 방법을 평가해 보는 것은 대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슬림을 향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기독교계에 작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가 보여주었던 상담학적 선교 방식<sup>1)</sup>이야 말로 대립적이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1) 본 연구자는 즈웨머가 보여주었던 선교 방식들 중 일부가 목회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를 대하는 방식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비록 그가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사이의 건설적인 만남을 가능케 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소고는 이슬람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사무엘 즈웨머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선교 방법을 목회상담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그가 보여준 상담학적 선교방식이 오늘날 무슬림과의 건설적인 만남을 촉진하는 하나의 가능성 있는 모델로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즈웨머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선교 방식을 소개하고, 간략하게나마 그의 이슬람 선교의 의의와 공헌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그의 선교방식을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논하면서, 그가 보여준 상담학적 선교방식이 오늘날 무슬림 및 타민족 선교를 위한 유용한 접근 방식으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히도록 할 것이다. 다만 즈웨머의 저작들을 국내 외적으로 접하기가 쉽지 않으며, 2, 3차 연구 자료들도 많지 않은 관계로 그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내용은 루스 터커(Ruth A. Tucker)의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A Biographical History of Christian Mission*에 소개된 내용과 존 우드 브리지(John Woodbridge)의 *Ambassadors for Christ*에 나타난 내용을 참고하여 소개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선교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목회상담자의 관점으로 살펴보려는 문헌연구 방식의 학제간 연구이기 때문에, 즈웨머의 선교방식에 대한 평가에 어느 정도 목회상담 학자로서의 주관적인 관점이 담길 수밖에 없음도 밝혀둔다.

## II. 즈웨머의 생애와 선교사역

사무엘 즈웨머는 1867년 4월 12일, 미시간주 홀랜드(Holland) 근처에서 네덜란드계 이민 부모의 15명 자녀 중 열세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개혁신교회 목사였다. 즈웨머의 아버지와 그는 공히 미시간 홀랜드의 호프 칼리지(Hope College)를 졸업했으며, 그의 살아남은 다섯 형제들 중 네 명이 목사가 되었다. 누이였던 넬리는 중국 선교사였으며, 아드리안과 카테리나 분 즈웨머는 모범이 될 만한 기독교 가정을 이

---

적어도 무슬림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자세 등은 상담 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의 선교 방식을 ‘상담학적인 선교방식’이라고 정의했다.

루었다.

그의 연대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890년에 미국 개혁신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891년 아라비아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독신으로 선교사역을 시작한 그가 1896년 영국에서 간호 선교사로 온 에이미 와일즈(Amy Wiles)와 결혼해서 바레인에 정착했다. 1904년 7월에 질병으로 두 딸이 죽었으며, 네 명의 다른 자녀들은 살아남았다. 1912년 바레인에서 옮겨와 이집트 카이로에 정착했으며, 1929년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1937년 에이미가 사망했으며, 1938년 사역을 은퇴했다가 1940년 마가렛 클라크와 재혼했다. 1950년 마가렛의 죽음 이후 1952년 4월 2일 즈웨머도 사망했다.

## 1. 선교사 즈웨머의 삶

즈웨머의 학창생활과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미시건 주에 있는 호프대 학교에 입학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생자원운동(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에 참여했다. 그는 졸업반 때 로버트 와일더(Robert Wilder)의 설교를 듣고 자원하여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 대학을 마친 후 뉴저지의 뉴브룬스윅(New Brunswick)에 있는 미국의 개혁신교회 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했다(Wilson, 1970: 49). 그곳에서 수학하는 동안 그와 그의 친구였던 제임스 캔틴(James Cantine)은 아라비아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이들은 당시 아랍어 교수였던 존 랜싱의 도움으로 개혁신교단의 자비량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아라비아 선교계획안을 구상했다. 물론 선교회가 이런 그들의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했다(Swartley, 2005: 348). 당시 이슬람 선교에 대한 즈웨머의 구상은 신학 공부와 함께 의학 훈련을 마친 후 아랍권에서 일을 하는 방식을 통한 선교 방안이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 당시는 ‘비실제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때였다. 그런 선입관으로 인해 그는 선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 아라비아 선교회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즈웨머는 이를 위해 약 6,400km를 여행했으며, 오하이오 서부에 있는 개혁신교단의 거의 대부분 교회를 방문했다. 이런 와중에 즈웨머는 1890년 5월 29일 목사 안수를 받았다.

즈웨머는 1891년 1월 12일에 처음으로 아라비아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제다’에 잠

시 머무르는 동안 그는 무슬림의 성지인 “하와의 무덤”이 있는 메카 외곽을 방문하였고, 그 후 ‘예멘’에서 두 달 간 동료이자 아라비아 선교부의 공동창시자인 캔턴과 함께 머물렀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즈웨머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했다. 우선 즈웨머 일행은 말라리아 열병을 앓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선교에 관한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도 매우 부족했는데, 종일 기도하면서 금식해야 하는 날들이 있을 정도로 어려웠다. 이런 와중에 오랫동안 연체되었던 월급이 송금되어, 원치 않은 금식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즈웨머는 아라비아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는 미국의 광범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아라비아 무슬림 선교의 필요성을 구약성경의 배경 속에서 제시하면서, 미국의 재정적인 지원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거의 모든 약속들이 현재 무슬림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John Woodbridge, 권성수 역, 1995: 234)?”

1894년 즈웨머의 아라비아 선교회는 미국개척교회 선교회와 통합할 것을 권유받았는데, 일이 느리게 진전되고 사역 초기 페르시아 만에서 반대에 직면했다. 초기 즈웨머와 캔턴은 영국 국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머물며 사역을 진행했다. 이후 영국 선교사 부부가 타 지역으로 임지를 옮기자 단들이 남은 선교회를 돕기 위해 젊은 시리아 회심자 한명이 동역하러 왔는데, 도착한지 6개월 만에 불시에 사망하자, 사역은 힘겨워졌고 그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즈웨머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Swartley, 2005: 349).

## 2. 이슬람 선교사역

### (1) 사역의 방향

사무엘 즈웨머는 무슬림 세계를 향한 불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겨두고 떠난 선교사로 이해된다. 그는 그런 자신의 사랑을 여러 저술 속에서 아라비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의 열정으로 표현하였다(Zwemer, 1916: 226; 1938: 7; 1941: 14, 248). 그는 자신의 선교의 열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가 우리 무슬림 형제들에게 악독한 적수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일들이 비기독교적인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때와 비기독교적인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뿐이다(Woodbridge, 1995: 236).”

이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삼위일체’나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교리들로 무장해 무슬림의 공격을 분쇄하거나 무슬림의 거짓된 교리를 타파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논증, 혹은 공격적인 선교 방법을 견지하고 있었던 때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즈웨머는 전혀 다른 무슬림 선교의 방향성을 강조했는데, 그는 논쟁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정신을 강조하는 ‘우정의 사역’을 역설했다: “오류의 망대에 대한 공격 보다는 상처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이 더욱 요구된다. … 무슬림의 가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뿐이다(Woodbridge, 1995: 236).” 과거 무슬림들을 향한 기독교의 선교는 관계 중심적이지 않았다. 사역자들이 전도 책자를 나누어주긴 했지만, 실제로 무슬림들과 함께 살거나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거나 교제하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이슬람을 이단적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논쟁적으로 공격했으며, 이슬람의 오류와 열등함을 파고들려고 노력했다. 물론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런 선교사들 중 일부는 무슬림과 친구가 되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진가를 인정하면서 성육신적인 증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사무엘 즈웨머였다. 그는 이런 우정과 사랑의 선교 방식을 무슬림 지도자들과 더불어 시작할 것을 강조했는데, 아라비아 선교 기간 동안 즈웨머가 무슬림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우의를 맺는 노력으로 실천되었다. 즈웨머는 무슬림을 형제로 인식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들을 품어 내며, 무슬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깊은 우정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이런 선교 방식은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무슬림 선교의 여러 방식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Swartley, 2005: 339).

## (2) 사역의 중점과 특징

### ① 우정의 사역

즈웨머는 이슬람 선교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문헌연구와 선교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한 이론을 접목시켜 균형 잡힌 선교이론을 제시하였다. 19세기 후반 학생자원운동(SVM)의 승리주의와 낙관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

서 성장하였던 즈웨머는 사역초기 이슬람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 예로, 그는 무함마드의 신 개념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하며 빈약하고, 심지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정승현, 2016: 127). 그러나 계속 이슬람 선교현장에서 무슬림들을 만나고 사역하면서 점차 그의 시각은 변화었는데, 오만과 바레인에서 10년간 선교하였던 미국개척교회(RCA) 목회자 후버스(John Hubers)는 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1916년부터 즈웨머의 이러한 변화된 관점이 저술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Hubers, 2004: 28). 즈웨머는 무슬림을 형제 혹은 친구로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가 이슬람에 대해서 비기독교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

이런 점에서 즈웨머의 후기 무슬림 선교 사역의 특징은 무슬림 지도자들과의 우의를 맺는 방식으로서의 전환에 있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이 이슬람권과 당시보다 더욱 가까워질 것을 확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사관의 직원들, 학자들, 상인들, 여행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좀 더 무슬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사역 방식을 이렇게 말했다.

한 민족의 정신과 그들의 종교 및 민속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알아야만 한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그 군중들을 이해하는 열쇠 곧 소위 그들이 이맘, 몰라, 그리고 셰이크라고 부르는 그들의 성직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는 데 있다(Woodbridge, 1995: 236).

더불어 그는 무슬림 민중들을 돕고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우선적으로 이슬람 신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야 하고, 이슬람교의 성직자와 성직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것은 우선, 이슬람 성직자들이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며, 반면 가장 강력하고 두드러진 기독교 회심자들이 바로 성직자 계층에서 배출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정의 사역 방식을 일관성 있게 견지했던 즈웨머는 프린스턴 강연에서 학생들과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교를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Woodbridge, 1995: 237).” 그는 무슬림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 자랑스럽게 영접하도록 초청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다.

## ②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접촉의 시도

1905년부터 이슬람 선교를 위한 여행과 강연을 통해, 무슬림 선교를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과 무슬림 선교사들을 발굴하는데 힘을 쏟았던 즈웨머는 1912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슬람 사회 전체를 위한 선교 사역을 맡아달라는 연합장로교 선교회의 부름을 받았다.

카이로에서 즈웨머의 사역방식은 남달랐는데, 그는 그곳에서 교육 받은 젊은이 집단을 만나는 사역에 집중했다. 그는 매주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알아즈하르 이슬람 대학의 자존심 강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도 만나 자유롭게 대화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때로 2천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참석하는 모임을 주관하기도 했으며, 극심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식층 무슬림들과의 대화를 통한 접촉에 적극적이었다. 물론 이런 사역 가운데, 불법전도 책자를 나누어주었다는 이유로 카이로를 떠나야 했을 때, 그 책자를 받은 학생이 격렬히 화를 내며 책자를 찢어버린 담당교수의 행동에 의아해한 나머지 찢어진 성경을 붙여 읽다가 회심하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다.

즈웨머는 17년 동안 카이로를 본부로 활동했는데, 그곳을 기점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수련회와 강연을 진행했고, 선교 기금을 모았으며, 인도와 중국, 인도차이나와 남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을 펼쳐 나갔다. 1918년 프린스턴 신학교에 교수로 청빙 받았으나, 카이로 사역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요청을 거절했다. 1929년 이후 카이로 사역이 자리를 잡은 후, 그는 프린스턴에서 교수직으로 섬기기 시작했으며, 잡지 'Moslem World'의 편집인으로 일했고, 수백 권의 소책자와 약 50권에 달하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슬람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파했다. 비록 40년 의 사역 기간 동안 그의 전도로 회심한 사람이 12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즈웨머의 이런 사역은 전 세계 교회로 하여금 이슬람을 향한 선교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데 큰 진척을 이루었다(Swartley, 2005: 351-352).

## ③ 조직보다는 성령의 임재를 강조한 사역

즈웨머는 자주 위원회와 회의, 통계수집과 분석 등으로 인해 긴요한 선교사의 시간을 빼앗기고 실제 사역이 방해되는 일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그는 위원회와 회의의 치밀한 조직과 운영만큼,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의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강

조했다.

더 많은 기술이나 조직이 아니라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됩니다. 선교조직이 더 치밀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더욱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우리가 만든 조직에 의해 좌우되는 바람에 끔찍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회의나 위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모든 부서와 지역을 조사하고 통계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영광의 왕이 죽으신 놀라운 십자가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Woodbridge, 1995: 238).

즈웨머의 아라비아 무슬림 선교 사역의 주된 동력은 단순히 위원회와 선교 지부의 조직을 통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역 체제에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그는 사역의 조직화에도 능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교사역은 철저히 기도와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고 있었으며, 즈웨머 스스로도 그것이 자신의 선교 사역의 주된 동력임을 잊지 않았다. 즈웨머의 기도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한 선교사역은 그가 평소 강조했던 우정과 대화를 통한 무슬림 사역의 방법론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선교는 결코 대립적이거나 공격적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무슬림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존중하려는 경청과 공감의 자세를 가지도록 도전하기 때문이다.

### III. 즈웨머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평가

즈웨머의 무슬림 선교에 학술적인 상담학적인 관점과 소양이 접목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특별히 그의 후반기 사역을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상담학적인 접근방식과 유사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즈웨머의 무슬림 선교 사역을 평가하면서, 그의 선교방식이 가진 상담학적 면을 찾아보고, 그것의 효과와 의미를 평가해 보는 작업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1. 선교 패러다임 전환의 시도

즈웨머의 무슬림 사역은 그 방식과 관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진다. 특히 그의 저작물들이 이 두 시기를 명확히 구분해 보여주고 있는데, 191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 저작물들은 무슬림에 대한 대결적이고 계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그 이후는 대화의 상대방으로서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정승현, 2016: 127, 140). 이처럼 즈웨머의 이슬람 선교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그의 선교방식과 지향점, 그리고 20년이 넘어가는 장기간 사역으로 인한 경험이 이전의 대결적 이슬람 선교 방식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18-19세기에 헨리 마틴, 칼 판더, 성 클레어 티달 같은 일부 선교사들은 공개 토론을 통해 무슬림을 구원시키려 했다. 그들은 또한 저잣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했으며, 영어와 지방어로 변증 및 논쟁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그들의 방법은 회심자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었으며, 무슬림의 기독교에 대한 반발과 반감만을 더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선교 모델을 ‘대결적 접근’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에는 널리 쓰이지 않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초창기에 이런 모델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종종 식민지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일했는데, 다분히 무슬림에게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다.

즈웨머의 경우에도 사역 초기에는 제국주의적인 선교 패러다임, 곧 대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승현, 2016: 123). 이는 그의 저작물을 통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1907년 작성된 그의 논문에는 무슬림 신에 대한 그의 부정적 평가가 나타난다. 무함마드가 신의 영적 형상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슬람의 신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도 부정적이다. 그의 형상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이며, 자비 없는 전능을 가진 존재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비인간적으로 여겨진다. 이는 기독교인의 믿음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인 믿음에 반대되고, 배운 무슬림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소지도 있으며,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로 여겨진다(Zwemer, 1907: 87).

이와 같이 이슬람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아래, 그가 취한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선교 모델은 이슬람 지역에서 서구식 교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Schlorff, 2012: 41-42). 선교사들은 회심자들에게 이슬람과 관계를 끊고 공개적으로 교회에 소속될 것

을 요청했다. 즈웨머도 회심자들이 다른 무슬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오랫동안 무슬림 사이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즈웨머는 “복음주의의 새로운 형상은 기존의 무슬림 환경으로부터 격렬하게 부수고 탈출하여 변화되는 것이며, 이는 이슬람을 복음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Zwemer, 1941: 259).

우리가 무슬림 탐구자에게 명확한 결정, 곧 그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쉬운 길은 복음의 길이 아니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에 대한 친근한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십자가의 길은 감화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힘이다(Zwemer, 1941: 261).

하지만, 사역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그는 상호 호혜적이고, 보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인류학적인 접근법을 취했다(Werff, 1977: 243-244).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정과 우애의 선교방식이었다.

즈웨머의 초기 대결적 선교방식과 접근법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며, 너무 서구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Swartley, 2005: 342-344).<sup>2)</sup> 그의 선교 초기 선교적 접근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스미스(Smith)의 연구를 참고하면 19세기 초반은 무슬림 지역으로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 있던 시기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슬람을 강경하게 거부했다. 그들은 기독교의 우월함을 이슬람과 비교하며 증명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즈웨머가 시대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비교 우위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mith, 1998: 357). 또한, 19세기 서구 사회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외교나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관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당시 서구 이슬람 연구의 관심사는 먼저 셈어 학자가 성경 텍스트와 그 저자로부터 드러나는 삶의 정황(Sitz im Leben)에 관심을 가지고 히브리 문학에 드러나는 역사와 배경에 관해 알고자한 것이었다. 아랍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셈 문화 동족으로서의 언어와 문화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학에 있어서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2) 존 마크 테리는 대결적 접근,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모델 외에, 이슬람 선교에 대한 접근법으로 제도적 모델, 대화식 모델, 상황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슬람을 자연적인 셈 종교의 하나로 보았고, 유대교와 동일한 셈 계열 종교로의 연구를 진행했다(Kerr, 2002: 9). 당시 이러한 시대 배경 하에서 즈웨머가 가졌던 초기 대결주의적인 선교방법과 비효율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그에 따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이슬람에 대한 그의 선교적 열정과 관심, 그리고 선교 후반기에 그가 보여준 우정 선교의 강조 등은 즈웨머를 ‘이슬람의 사도’로 부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즈웨머가 이슬람에 대한 선교 접근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슬림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열정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즈웨머의 삶과 이론은 오늘날 이슬람 선교에서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와 종교다원주의의 양극단의 관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무슬림을 포용하면서도 복음의 진정성을 잃지 않는 건설적인 선교방안을 찾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 2. 즈웨머의 목회상담적 선교방식

즈웨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선교의 실제적인 열매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이슬람 선교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슬람 선교지에 처음 발을 디딘지 25년이 흐른 49세 때인 1916년 즈음부터 선교방식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정승현, 2016: 127, 140). 그의 변화된 선교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날 보기에 상담학적인 관점을 가진 선교방식 혹은 전략으로 보인다. 상담학적 선교방식이란 복음의 일방적이고 선포적인 방법이 아닌, 상호 관계성 가운데 호혜적이고 양방향성의 소통을 추구하는 전략을 말한다. 그의 변화된 선교방식은 오늘날 상담학적인 관점이 가진 특징들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무슬림을 비롯한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교류에 필요한 건설적인 접근방식과 이해를 제공해 준다.

### (1) 공감과 경청의 자세

즈웨머의 이슬람 선교 초기 사역은 기존의 이슬람 선교사들이 가졌던 기독교의 우

월주의에 기반 해 있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이슬람보다 선진국이었던 미국에서 성장한 배경을 가진 채 이슬람권 선교사로 나갔던 다른 선배 선교사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 그가 이슬람 권역에 첫발을 내디딘 때가 24세였던 1891년이었는데, 젊은 시절 그도 이슬람 세계에 대한 편견과 마음의 벽이 있었으며, 여러 저술 속에서 드러났다(정승현, 2016: 129). 이 당시 이란이나 터키 등지에서 진행된 여러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은 거의 열매를 얻지 못한 채 무너지곤 했다. 즈웨머는 무슬림 선교의 절망적 상황을 보면서 왜 이슬람 선교사역이 열매를 맺기 어려운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이 겪는 어려움을 무슬림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았다(Woodbridge, 1995: 236). 왜냐하면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개종이지만 무슬림에게는 배교가 되기 때문이다. 꾸란 4장 89절에는 배교자에게 죽음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친족, 이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이슬람 문화의 특수성 속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 문화를 벗어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 때문에 즈웨머는 공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제자로서의 공개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무슬림 출신 숨은 개종자들의 삶을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사회적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그들에게 서구 교회 기준에 맞는 공적 세례를 통해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도 충분히 인식했다(정승현, 2016: 141). 이와 같이 즈웨머는 초기부터 자신이 견지했던 무슬림에 대한 이해와 선교방법론을 내려놓으면서, 많은 부분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무슬림들이 겪는 신앙적 어려움을 공감하려는 태도로 전환했다.

이러한 즈웨머의 현장 중심 선교방법은 목회상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공감’과 ‘경청’이라는 상담기술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경청은 목회상담과 치료과정뿐만 아니라 일반상담 분야인 정신분석치료, 인간중심치료, 이야기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사회적으로도 경청의 중요성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성경도 ‘경청’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현상규는 시편을 하나님의 경청을 기록한 ‘상담사례보고서’라고 정의했다(현상규, 2012: 214). 성경은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청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도다(시 116:12).”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그녀의 말과 감정의 표현을 경청하셨다(요 4:7-26).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여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이런 자세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적 경청은 그녀로 자신의 수치스런 내면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런 점에서 경청과 공감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공감이 경청의 필요조건이다. 공감(Empathy)은 ‘안으로의 느낌’, 또는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다(현상규, 2012: 229). 그러므로 공감은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감적 경청은 ‘성육신’의 사랑 속에 잘 드러났는데, 그 사랑은 자기 비움, 즉 성육신에 있었다. 예수님의 자기부인, 낮아짐, 겸손을 배우는 것이 목회상담에 있어서 ‘경청’의 비결이다. 목회상담자인 글렌 보이드(Glenn Boyd)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보여줄 가장 중요한 치료적 태도를 ‘경청’이라고 했다(Boyd, 2003: 345). 목회상담자에게도 문제를 안고 찾아온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상담은 얽혀 있는 내담자의 삶의 위기 사건들을 이야기를 통해 표현하도록 하는 치료의 과정으로, 상담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의 깊은 경청’인 것은 당연하다. ‘경청’이란 내담자가 말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면의 소리들까지 듣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상담에서의 공감과 경청은 충분한 감정과 의미의 교환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한다(김경수, 2011: 154). 칼 로저스(Carl Rogers)는 내담자 중심 치료를 조인했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진단과 진단의 강점에 대한 확신, 상담자로서 자신들의 전문가적 평가를 내리려는 경향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ogers, 1965: 2). 로저스의 상담방법은 상담자의 위치와 역할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자가 주도하는 상담방식에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교묘히 지시하려는 유혹과 같은 단점을 피하고, 나아가 내담자가 취하는 현재의 태도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방식의 태도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경청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제 3세계 선교 초기 흔히 일어났던 갈등은 선교사들이 서구문화, 기독교신학의 이해 속에서 현지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 종교적 배경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기독교신학과 서구 문화를 이식시키려 하는 태도에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이슬람 초기 선교사들이 그러했고, 즈웨머의 초기 선교도 그 범주 안에 있었

다. 그러나 1916년 이후 즈웨머의 태도가 변화하면서, 그의 선교방식도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대결구도의 선교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상호성에 근거한 호혜적 선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즈웨머로 하여금 무슬림과 그들의 종교, 문화 등에 대해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이해하려는 태도, 곧 공감과 경청의 자세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이렇듯 공감과 경청의 자세로 무슬림에게 다가갔던 즈웨머의 선교방식을 ‘상담적 선교방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과 경청의 선교적 선교방식은 지금도 무슬림을 비롯한 타문화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실제적으로 예수의 사랑에 근거한 이와 같은 선교방식은 무슬림 선교의 가치적인 결실을 가능케 했다. 2007년 우드베리(J. Dudley, Woodberry)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 곧 기독교인이 된 무슬림 700여명을 대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본 경험을 원인으로 답했다(Sproul and Saleeb, 2003: 33). 선교사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학적인 언명을 넘어 선교사들과 무슬림들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 증거 되어 왔다. 무슬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들의 목소리와 감정과 환경적 어려움, 고통에 귀를 기울이려는 공감과 경청의 자세가 일차적으로 무슬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개종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감, 친밀감, 존경심은 이슬람 전도사역에 핵심적 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입증되고 있다. 무슬림을 향한 복음전도자의 사랑과 인내, 겸손과 경청은 그들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요인이 된다(김승호, 2013: 224). 이미 개종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개종 이유를 기독교 교리에 의해 설득된 것보다는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말하고 있다(Douglas, 1975: 824). 이런 측면에서 20세기 초 즈웨머가 보여준 공감과 경청의 자세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탁월한 방법임에 틀림없으며, 선교가 목회상담에 기반하여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 (2) 선교의 도구로서의 이야기, 대화의 시도

즈웨머는 선교사역 초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무슬림 선교에 임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과 방법론에 근거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큰 길 가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전도를 했다. 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Ruth Tucker, 2014: 381). 이후 카이로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즈웨머는 선교방식을 바꾸었다. 1916년부터 그의 저술 속에는 무슬림에 대한 변화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시기로부터 무슬림을 ‘친구’로 표현하기 시작했다(정승현, 2016: 127). 이는 그가 마음과 귀를 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대화 파트너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교방식은 무슬림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여 가르치고 계도하여 문명화, 기독교화 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이런 인식에 기초한 선교방식이 공개적인 행동으로 진행되는 노방전도, 축호전도와 같은 일방적인 선포사역이었다. 그러나 무슬림을 친구로 인식한 이후부터, 즈웨머는 그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 대화 상대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기존의 전도 방식을 바꿔 새롭게 무슬림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일방적인 선포 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특히 그는 언어적, 학문적 소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대학생, 대학의 교수들과 같은 인텔리한 지성인들에게 접근했다. 이는 무슬림 개종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성인들의 영향력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슬림 대학을 타겟으로 삼았다. 캠퍼스에서 지성인들을 상대로 개인적 접촉을 가졌으며, 활동 범위도 개인에서 집단으로 넓혀 세미나 개최, 캠퍼스 집회, 집단 토론회 등을 가졌다. 이렇듯 즈웨머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무슬림 선교의 중요한 방법으로 실천했다. 같은 맥락에서 즈웨머가 종교로서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강조했는데, 이것도 원활한 대화와 이야기를 가능케 하기 위한 선행적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선교 방법론으로 이슬람 신학의 선이해,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만든 스토리텔링을 통한 접근 및 꾸란을 가지고 하는 대화의 시도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론들이 즈웨머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진다(공일주, 2008: 62). 비록 즈웨머가 대화 혹은 이야기 가 가진 능력이나 효과에 대한 상담학적인 통찰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역에 있어서 대화와 이야기가 중요한 선교적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sup>3)</sup>

3) 과거 대립적인 선교 패러다임에서도 이야기가 선포되고 대화가 진행되었지만, 이 때의 이야기와 대화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즈웨머는 대화와 이야기를 메시지 전

가족치료자인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는 “대화가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Satir, 1967: 63). 사람은 이야기를 떠나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상담(相談)의 한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상담에 있어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상담은 ‘이야기 작업’(talking work) 또는 ‘이야기 치료’(talking cure)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에 있어서 ‘이야기’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미국 목회상담학자인 찰스 거킨(Charles Gerkin)은 ‘이야기’를 내담자를 이해하는 목회상담의 도구이자 기반이라고 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이야기와 내담자의 이야기가 만나 지평융합을 이루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 진다고 보았다(Gerkin, 1994: 153-156). 물론 이런 이해는 상담이론 중 하나인 이야기치료에서도 동일한 철학이다(변재봉·이관직, 2015: 124-128).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대화 중에 만나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의 융합이 일어나는 상담 현장 속에서 이야기는 상담의 시작점과 접촉점, 내담자의 마음을 여는 접촉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담과정 속에서 이야기와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 선교현장에서 즈웨머가 보여 주었던 이야기와 대화의 방법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가진 무슬림이 가진 이야기와 선교사의 기독교적 지평을 가진 이야기가 만나 선교현장의 목소리와 아픔, 고통,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갈등과 몰이해 등을 담아낸 새로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 이 과정에서 선교사와 무슬림 사이에 접촉점이 만들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물론 즈웨머 당시 이야기와 대화에 대한 이런 상담학적인 이해를 담지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그가 가진 타고난 통찰력 중 하나로, 이야기와 대화의 중요성을 발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자신이 견지했던 기존의 선교방법론을 철회하고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이야기들을 공감과 경청의 자세로 이해하려는 자세는 즈웨머가 새롭게 선보인 상담학적 선교방법의 한 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활용이 상담학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중요

---

달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능동적으로 무슬림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선교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 역할을 해 왔듯이, 무슬림 선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3) 무슬림, 치료적 동맹관계의 파트너로서의 이해

즈웨머는 사역 초기 서구 식민주의적 관점과 낙관주의로 이슬람을 평가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가치관과 영적 방향성이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슬람 선교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선교사들의 우월적인 서구적 관점과 무슬림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적, 적대적 시각처럼 서로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구적 관점이란 기독교 신조에 기초한 변화의 요구와 서구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즈웨머는 사역 초기(1890-1916)에 이슬람 선교 방법에 있어 대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승현, 2016: 123). 그의 책 *The Disintegration of Islam*(1916) 『이슬람의 붕괴』와 *Mohammed or Christ*(1915) 『무함마드인가 그리스도인가』를 보면, 그는 ‘철저한 치환’ 곧 이슬람 신봉자들이 이슬람을 완전히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슬람에 대한 선교 접근법에 따르면, 즈웨머의 선교 사역은 1916년 이전(비관적 관점)과 이후(건설적 관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16년을 기준으로 즈웨머의 사역 전반부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그의 관심사를 네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것들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조사; 이슬람의 신, 선지자 그리고 꾸란을 포함한 이슬람신학의 심도 있는 분석; 무슬림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는 이슬람의 윤리;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역사와 방향이다. 하지만 무슬림들의 서구문명에 대한 반발과 열등감,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거부반응과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즈웨머에게도 서구식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거부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이슬람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켰다(정승현, 2016: 140). 이후 즈웨머는 보다 인류학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접근법을 취했는데(Werff, 1977: 243-244),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우정과 우애의 선교방식으로 드러났다. 이런 그의 성향은 사역후기에 들어서면서 개인과 소그룹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정 선교에 힘을 쏟는 것과 이슬람 지도자들과의 우의를 다지는 관계전도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 그는 『무함마드인가 그리스도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을 절대로 우리의 적들로 간주

하지 말자. 대신 그들에게 기독교의 신조가 아니고 십자가와 그 영광의 권능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가 그들의 친구임을 증명하자(Zwemer, 1915: 241).” 그는 무슬림을 친구로 인식하고 적대감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고자 했다. 교리적, 신학적 이해와 설득보다 관계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눈뜨게 된 것이다.

무슬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대화의 대상자인 친구로서 이해하는 관계형성이 중요하다는 즈웨머의 변화된 선교학적 접근방식은 목회상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적 동맹관계 형성과 유사하다. 상담과 치료, 교육 등에서 분야의 특성상 상호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치료 동맹관계가 형성되어야 다음 목적을 향해 순항할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내담자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감정 또는 생각을 내어 놓기 때문이다. 안전한 치료관계가 형성되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안정적인 상담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상담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김은지 외, 2016: 218). 치료동맹관계 자체가 문제해결의 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동맹관계에 따라 상담자의 개입 가능성도 달라지며, 내담자의 참여율도 달라진다. 에커만(Ackerman)과 힐센로스(Hilsenroth)는 연구를 통해 상담자의 기법에 따라 치료동맹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신뢰감, 융통성, 경험수준, 자신감 있는 태도, 따뜻함과 같은 개인적 특성, 탐색, 정확한 해석, 내담자 경험에 관심 기울이기”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Ackerman & Hilsenroth, 2003: 1-33). 서로를 대결구도 속의 경쟁자, 적대자 혹은 설득하고 이겨야 하는 대상자로 인식하기보다는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와 치료적 파트너로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감 형성과 대화의 선행적 요건이 된다. 이처럼 즈웨머가 무슬림들을 적대관계에서 친구관계로 인식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무슬림을 선교를 위한 치료 동맹관계 지평에 올려놓았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인식은 여전한 대결구도 속에서 종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오늘날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서구선진국들과 제 3세계 사이에서의 신뢰회복, 건설적인 대화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를 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배 선교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

#### IV. 결론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자신의 책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서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논했다. 신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왔던 것처럼, 선교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환을 맞이할 것에 대해 말했다. 이런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주인공이 즈웨머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역 초기 견지하고 있었던 그의 공격적이고 대결적인 선교패러다임이 사역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상호 호혜적인 패러다임으로, 인류학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이야말로 그의 이슬람 선교의 모양새를 바꾸어 놓았으며, 오늘날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능히 ‘상담학적 선교방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선교방법론을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즈웨머를 단순한 문서 선교에 종사한 서적 판매원, 혹은 이슬람 지도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에만 힘을 쏟은 선교사 정도로 평가하려는 일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Woodbridge, 1995: 235), 그의 사역 전반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이슬람 선교의 선구자적인 행보를 보인 사역자로 평가 할만하다(정승현, 2016: 123).

즈웨머의 아라비아 사역의 중요한 선교사적 의의는 당시 이슬람 선교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기독교계에 이슬람 선교의 필요성을 전파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의미 있는 선교를 한 사람은 13세기의 라몬 롤이 최초였는데, 그는 무슬림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복음화 하는데 관심을 보인 최초의 사람이었다(Ruth Tucker, 2014: 371). 그러나 라몬 롤 이후 몇 세기 동안 무슬림 땅에 대한 선교적 관심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여전히 소홀히 취급되었으며, 이 같은 무관심은 19세기가 되어서야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기억되는 헨리 마틴(Henry Martyn, 1781-1812)의 짧은 선교사역 이후, 본격적인 무슬림 선교의 길을 연 사람이 즈웨머였다. 뿐만 아니라, 즈웨머는 수많은 수련회의 인도와 강연, 모임의 진행을 통해 이슬람 선교의 필요성을 미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설파했는데, 당시 ‘학생 자원운동’에 의한 선교 열정과 맞물려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슬람 선교에 자원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즈웨머의 선교방식이 기존의 대결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극복했다는 점만큼 중요한 의의는 학제적인 연구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무슬림 사역에 상담학

적 선교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즈웨머의 선교는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관계성을 맺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들과 접촉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대화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식인들의 사고체계를 변화시켜 가는 방식이었다. 즈웨머가 선교를 할 당시에는 이런 방식이 목회상담적인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슬림 선교에 직관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상담학적인 관점 및 방법론과 유사한 것들을 활용하여 무슬림에게 다가갔다는 점은 그의 놀라운 혜안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선교 방식에 있어서 목회상담적 관점이 접목된 선교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보쉬가 논했듯이, 변화하는 선교 현장의 상황에 이만큼 적합한 접근 자세가 없기 때문이다. 목회상담과 선교학이 비록 다른 학문 분야이며, 고유한 학문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고유 영역은 지키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으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교학적 입장에서는 복음이라는 값진 보물을 선교현장에 내어 놓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목회상담학적인 포장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복음이 심겨지기 전까지 현지인들과 상호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이 말씀이 들어가고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절차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목회상담적 선교방식의 필요성과 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목회상담적 관점과 인간 이해,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선교방법의 연구와 활용에 더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즈웨머의 목회상담학적 선교방법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선교사 즈웨머와 그의 가족들이 겪은 많은 어려움들을 고려할 때, 선교사들을 위한 목회상담이 교단과 선교회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끝으로 제안한다.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은 목회상담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다(Nouwen, 1999: 41-126). 태생적으로 목회상담자나 목회자, 선교사는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이다. 결국 선교사와 목회상담자는 모두 자신의 상처와 싸워야 하는 존재인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생소하고 낯선 타문화권의 환경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 불안과 두려움, 의기소침, 현지에서 겪는 다양한 고통과 상처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체력적, 영적 탈진에 빠지기 쉬운 선교사를 위한 목회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위한 목회상담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즈웨머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선교방법은 오늘날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사이에, 혹은 선진국들과 제 3세계 사이에, 그리고 이 땅의 존재하는 다문화 가정들 속에서, 서로 이해와 화해, 동반자적인 삶을 위해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무엇보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역의 효과적인 관점과 방법으로서 ‘목회상담학적 선교방법’에 대한 통찰을 준다는 점은 즈웨머로부터 배우는 고마운 점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Ackerman, S. J. and M. J. Hilsenroth. (2003). "A Review of Therapist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Positively Impacting the Therapeutic Allia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1). 1-33.
- Boyd, G. E. (2003). "Pastoral Conversation: Relational Listening and Open-Ended Questions." *Pastoral Psychology* 51(5). 345-346.
- Douglas, J. D. (1975).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Official Reference*. Minneapolis: World Wide.
- Gerkin, C. (1994).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Nashville: Abingdon Press.
- Hubers, J. (2004). "Samuel Zwemer and the Challenge of Islam: From Polemic to a Hint of Dialogu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28(3). 28.
- Kerr, D. A. (2002). "Christian mission and Islamic studies: Beyond antithesis."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26(1). 8-15.
- Neill, S. C. (1964).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New York: Penguin.
- Rogers, C. R. (1965).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
- Satir, V. (1967).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mith, J. I. (1998). "Christian missionary views of Islam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9(3). 357-373.
- Sproul, R. C. and A. Saleeb (2003). *The Dark side of Islam*. Wheaton: Crossway Books.
- Vander Werff, L. L. (1977). *Christian Mission to Muslim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Wilson, J. C. (1952). *Apostle to Islam: A Biography of Samuel M. Zwemer*.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 \_\_\_\_\_ (1970). *Flaming Prophet: The Story of Samuel Zwemer*. New York: Friendship Press.
- \_\_\_\_\_ (1983). "The Legacy of Samuel M. Zwemer."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0(3). 118.
- Zwemer, S. M. (1907). *Islam, a challenge to faith: studies on the Mohammedan religion and the needs and opportunities of the Mohammedan world from the*

- standpoint of Christian missions*. New York: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 \_\_\_\_\_ (1915). *Mohammed or Christ*. New York: Fleming H. Revell.
- \_\_\_\_\_ (1916). *The Disintegration of Islam*. New York: Fleming H. Revell.
- \_\_\_\_\_ (1938). *The Glory of the Cross*.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 \_\_\_\_\_ (1941). *The Cross Above the Crescent*. Grand Rapids. MI: Zondervan.
- Bosch, D. J. (2000).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김병길·장훈택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CLC.
- Nouwen, H. J. (1999).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최원준 역 (2001). 『상처입은 치유자』. 서울: 두란노.
- Schlorff, Sam. 김대옥·전병희 역 (2012). 『무슬림 사역의 선교학적 모델』. 서울: 도서출판 바울.
- Swartley, K. E. (2005). *Encountering the World of Islam*. 정옥배 역 (2005). 『인 카운터 이슬람: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무슬림』. 서울: 예수전도단.
- Tucker, R. A. (2004).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A biographical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오현미 역 (2014). 『선교사 열전』. 서울: 복 있는 사람.
- Woodbridge, J. D. (1994). *Ambassadors for Christ*. 권성수 역 (1995). 『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 도서출판 햇빛.
- 공일주 (2008). “무슬림과의 의사소통 전략.” 『복음과 선교』. 10(2). 11-69.
- 김경수 (2011). 『성경적 목회상담 이론과 실제』. 경기: 도서출판 목양.
- 김승호 (2013). “무슬림전도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위한 제언.” 『복음과 선교』. 22. 195-229.
- 김은지 외 (2016). “청소년상담의 초기에서 치료동맹을 촉진하는 상담자 개입.” 『청소년학연구』. 23(6). 215-238.
- 김정위 (2002). 『이슬람사전』. 서울: 학문사.
- 변재봉·이관직 (2015). “찰스 거킨의 이야기해석학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평가 및 적용.” 『목회와 상담』 25(2). 112-149.
- 정승현 (2016). “‘이슬람을 향한 사도’ 사무엘 즈웨머의 선교이론 탐구.” 『선교와 신학』. 38(2). 124-156.
- 현상규 (2012). “경청에 대한 기독교심리학적 고찰.” 『목회와 상담』. 서울: 한국목회상담학회. 18. 211-237.

## Abstract

# Samuel Zwemer's Islamic Mission and His Pastoral Counseling Method

Peter-Gyecheon Cho (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Zwemer's devotion in an attempt to evaluate to the Islamic missionary and his pastoral counseling method. In the late 19th century, Zwemer had collected donations by himself and then he went to Arabia for the Islamic missionary. His Muslim missionary had many trials such as fever, lack of finances, and the death of loved ones. But he did not give up the Islamic missionary. During 26 years of his mission, although it did not bear much fruit for the salvation of souls. So, he had no choice to change his strategy. It was used as a way of Christ-centered and Anthropological rather than confrontational and conflicting way of mission from the beginning. It was shown by the way of mission as the love of Christ and the cross, friendship and companionship. His detailed and changed mission paradigm form, seems to be strategy or the way of mission that have a perspective of pastoral counseling in today. The method of his missionary approach is evaluated as much to contribute to future missions counseling or pastoral counseling. He knew that the mission through such public preachment or forum on the street caused resentment and resistance from the Muslims. Thus, he used a Christ-centered approach such as the cross of Christ in love and friendship, and struggled to build relationship with intellectuals. This method is similar to the pastoral counseling approaches such as empathy, listening courteously, narrative analysis and therapeutic alliance. Therefore, Zwemer's Muslim missionary method should receive a new assessment in that it was a mission with a pastoral counseling element, and it is expected to become a useful material in order to develop a new methodology of pastoral counseling mission as an alternative way to live as a partner for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conflict of religious or political.

Key Words: Islamic missionary, Muslim, empathy and listening courteously, narrative analysis, therapeutic alliance, method of pastoral counseling mission